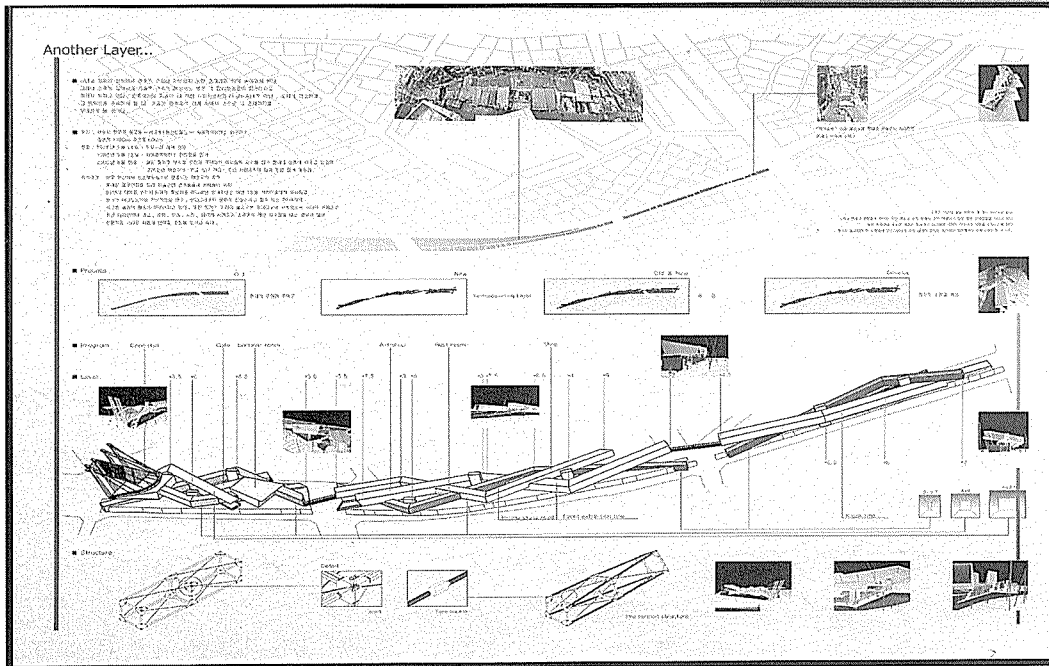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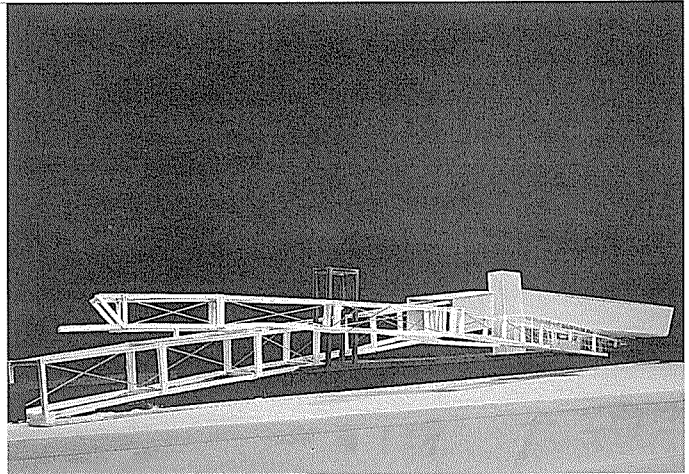


Another Layer

최기호, 최혜련

한양대 건축디자인대학원, 숭실대 건축학부3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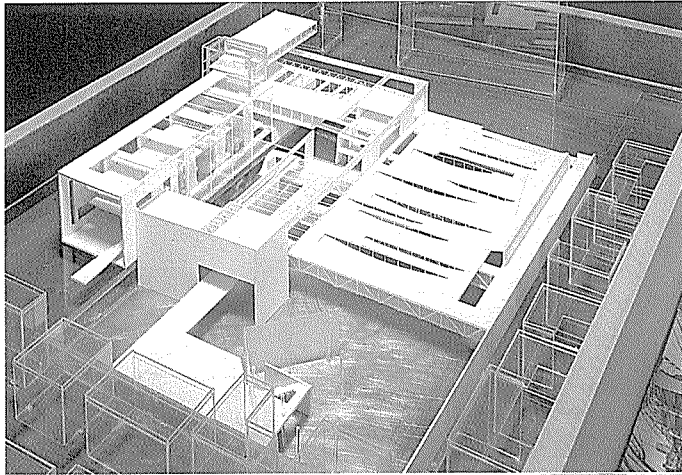


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은 infra이다. 그러나 현재의 완전 철거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있다. 현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 생존권 보장 시위문제 등을 비롯 지역성을 무시한 개발은 지금까지 지녀온 이 지역의 이미지와 역할을 소멸시키게 된다.

그러나 현 시점에서 철거가 불가피 하기에 보다 현실적으로 점진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 보기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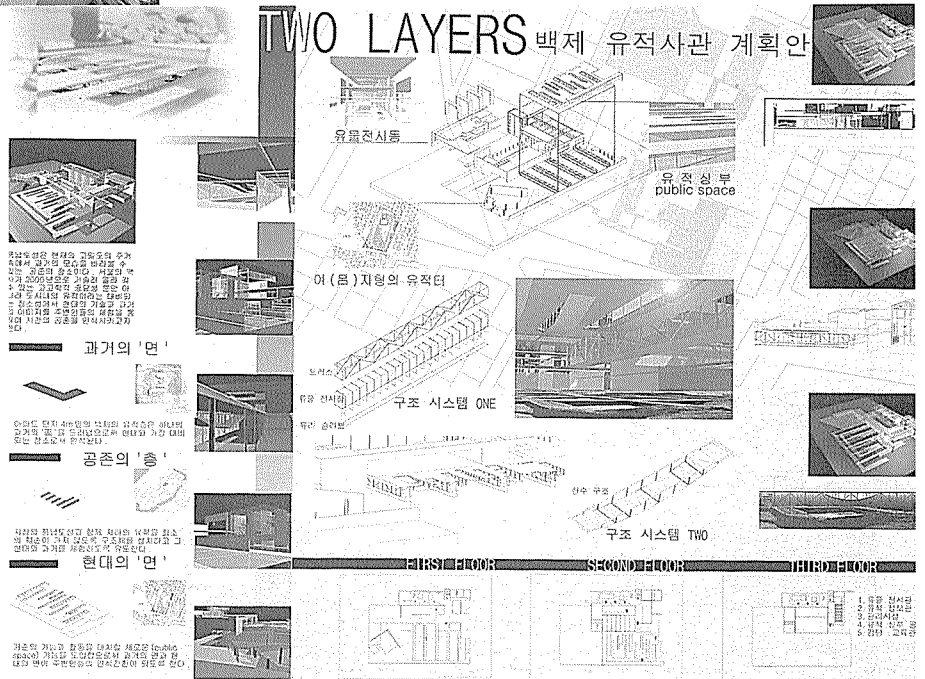
위치 : 서울 마포구 동교동-서교동(구 용산선 철도-당인리 발전소 입구간)
총연장 1,700m 중 600m의 무허가 주택군

백제유적사관 계획안



문성훈

명지대 건축학부 4년



풍납토성은 백제의 위례성 시대의 정궁(宮)과 도읍의 중심으로 가장 유력하게 추측이 되는 곳이다. 이번 아파트 재 건축사업 중 발견된 유적은 그 가치면에서 고고학적 뿐만 아니라 서울의 역사를 2000년으로 끌어올리는 데 그 의의가 크며 그 만큼 유적의 보호가 절실하다. 서울시내에서 암사동 등의 유적지와는 다르게 고밀도의 주거지

속에 유적이 발굴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주변 현재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, 풍납토성 내의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시발점으로 더욱 서울 속의 백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.